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July 2015 | vol.72

지방자치실천포럼

07







이달의 Issue | 공동체정원

이슈대담

–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 오시덕 공주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72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 **편집위원장** 이창균
위원 권오철 박진경 김건위 김성주 김대욱 강영주 /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CONTENTS

July 2015 | vol.72

2015.07

이달의 Issue

– 공동체정원

04 이슈대담

–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 오시덕 공주시장

12 논단

–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사업 추진방안

–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정원 육성 방안

22 국내외 우수사례

– 교남동 공동체정원가꾸기

– 독일의 생태소공원 : 도르트문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32 지방자치단체 탐방

– 찬란했던 웅진백제시대의 숨결을 느껴보자!, 공주

38 연구원 동정



04



12



32

오시덕 공주시장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일시 및 장소 2015. 7. 8.(수) 공주시장 집무실
인터뷰 대상 오시덕 공주시장
인터뷰 진행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승규 수석연구원 공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육성 및 희망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에 대비한 공주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공주시에서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의 품격에 맞는 관광기반을 구축,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공주를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공산성 누각경관 조명 교체시연

첫 번째로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예상, 안전한 관광자원을 확충하는가 하면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관광수용태세 용역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공주 관광수용태세 현황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광기반을 구축,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무령왕릉 버스터즈(4D 애니메이션)를 제작 중에 있으며, 웅진백제역사관을 정비하고 KTX를 타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투자하여 공주역사 앞에 상징조형물, 관광안내판 및 안내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와 안내판 일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증원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으뜸공주맛집 서비스 수준향상과 4개국어로 된 관광홍보물 제작,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육성사업을 통하여 공산성 왕궁추정지에 왕궁을 복원하고 왕궁부속 시설에 웅진왕성 유적공원을 조성하는가하면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및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을 통해 백제 왕도로서의 도시를 복원해 나가면서 공산성과 무령왕릉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산성 누각 경관조명개선과 세계유산 수목식재 및 탐방로 정비, 꽃길조성 등 시가지 가로환경개선과 테마 가로 골목길을 정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템플스테이와 홈스테이를 통해 힐링과 체험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관광코스와 공주와 부여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만들 것이며 특히 우리의 자랑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각종 홍보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시장님의 민선6기 정책 중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소통이 어우러진 행정을 표방하셨습니다. 특히, 시정발전연구단을 설립하여 추진과정 전반에 자문을 반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 설정을 통한 공주시 마을만들기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우리 시의 정책개발 및 방향제시, 시책 제안, 중앙정부 등의 정책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정발전연구단이 지난 1월 15명의 직원으로 출범했습니다. 6개월간의 운영실적으로는 정과제 17건, 부과제 10건의 정책을 개발하였고, 우수지자체 견학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시책들을 우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공주시 마을만들기의 구체적인 계획(로드맵)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민 유치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마을14개소를 선정하여 체험관 신축,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농촌체험휴양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종합평가 및 구상발표

마을에 권역별 사무장 지원, 농촌체험마을 및 농가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으로 흥미진진 공주나드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명품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체험농가 컨설팅, 브랜드개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분야별(체험, 관광, 소득, 생태환경 등) 특화마을(스타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민이 농촌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마을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해 공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독특한 사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공주 의당면 요룡마을은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농촌체험 및 관광으로 도입하여 구석기 생활도구 만들기, 움집만찬 등 다양한 구석기 체험활동과 마을에서의 농촌체험 등 역사유적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마을은 일반 마을만들기와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마을 자립기반의 방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취임 후 공주발전의 로드맵으로 제시하신 혁신적 창조기업 도시와 지역경제 인프라 조성과 연계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견인된 중간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인구가 유입되어 활력 있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행정,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 이전, 신·증설기업,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을 늘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기업유치촉진본부를 발대하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 이전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보를 파악해 기업입지를 홍보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발 빠르게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



▲ 공주시 기업유치촉진본부 현판식

하고 지난해부터 23개 기업이 공주시에 둥지를 틀어 759억 원의 기업투자와 1천 24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고, 13개 기업과 1천 91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1천 9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여러 우량기업들도 이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과 읍·면·동 노인회와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자매결연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제공과 농특산물 애용 및 기업의 사회적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특히,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 농산물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영농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마을만들기 사례는 무엇입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의 활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14년 말까지 8개 마을 기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신풍면 무르실 농촌체험 및 치즈스쿨학습장 운영,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신풍고추 등 지역생산품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주민에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생동감 있는 마을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전국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제일의 공주밤을 특화하여 친환경밤가공 개발, 유통개선 등 마을기업이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밤농가 참여 확대로 상품의 조기 정착과 고소득 창출효과를 얻으며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침체되어 가는 마을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공주 지역 및 특산품, 농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확대로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공주의 교육도시 특성과 결부되어 만들어진 마을만들기 사례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특장점을 소개해 주십시오.

오시덕 공주시장 현재 농업·농촌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품질인증 평가를 적극 활용한 결과 충청남도교육청 우수농촌체험장 인증(13개소),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3개소), 공주시 농촌체험교육농장육성사업(3개소) 및 농어촌인성학교(1개소)로 지정되어 교과과정에 부합하는 질 높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인증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문하는 체험객(주로 초·중학생 및 교사·학부모)들의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하면 동시에 치즈, 떡만들기, 놀이체험 등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자연생태교육·예절교육·사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효과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치즈스쿨 학습장 운영

박승규 수석연구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체험관광객유치, 주민역량강화교육, 관광프로그램개발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시덕 공주시장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옥마을에 백제문화체험관을 신축, 백제복식체험과 포토존을 설치했고 반포면 상신리에는 전통문화 놀이와 돌담조성, 스토리가



▲ 시티투어 운영

있는 인문학 강좌 등을 개최하는 문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정안면 인풍리에는 주막거리를 만들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주막촌(마을 농특산물 판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체험휴양마을을 견학하고 성공사례와 함께 인식전환 및 선진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접목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KTX 공주역 개통에 맞추어 공주의 백제문화 선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일깨워주고 있으며 공주일원을 관광할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 관광객들에게 공주를 좀 더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휴양체험마을과 40여개의 체험농장을 중심으로 레일그린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도농교류에 한걸음 더 나가가고 있는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덕 공주시장 공주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사업 추진방안



김창신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시설사무관 / 공학박사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도시 및 농촌 등에서 지역 공동체 소멸 및 파괴 등의 부작용이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적 소외뿐만 아니라 골목길 주차시비,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 간 시비가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도로, 상하수도, 공단 등 대형 인프라 확충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높지 않아서 일상생활 공간에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요구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배제형 지역개발사업은 주민 체감도를 약화시키고 집단민원만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현장과 밀착된 지역정책, 지역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율적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공동체정원이란

해외에서 "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는 공동체정원은 지역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을 말함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공동체형성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또한 행복하게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웃과 협력하여 텃밭을 가꾸는 "공동체정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동체정원사업의 주체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이며, 텃밭은 지역사회 내에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함께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여가와 취미활동을 장려

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공동체정원사업의 기본방침은 도시농업 자체보다는 주민들의 협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동체 육성과 도시경관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5년~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단체텃밭·꽃밭과 가족텃밭·꽃밭 및 꽃길 등 도시형 농업활동을 통해서 지역별 중심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한다.

사업의 대상은 미사용 국·공유지로 폐철도, 하천부지, 자투리땅과 녹지지역, 공원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도시재정비지역, 또는 거주지역 인근에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나 나대지 등이다. 우선 사업대상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부지로서 정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지와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기관이 설립한 그린 트러스트 소유부지, 개인소유이지만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원 장소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선정한다.

공동체정원사업 추진체계

공동체정원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체계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조직이 구성된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아이템도 발굴하여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정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주민은 스스로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때 관련분야 전문가나 자문단, 연구원 등이 주민조직에 컨설팅을 지원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관여하게 된다.

공동체정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15년~'16년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5. 7월부터 2016.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공동체정원 총 9개소로 1만㎡ 미만(3,025평) 3개소에 5억 원, 1만 ㎡ 이상~2만 ㎡ 미만(3,025평 이상~6,050평 미만) 3개소에 9억 원, 2만 ㎡ 이상(6,050평) 3개소에 21억 원이 지원된다.

공동체정원의 주요시설은 부지면적 2만 ㎡ 이상(6,050평)을 기준으로 정원시설 12,000

㎡에 가족텃밭·꽃밭과 단체텃밭·꽃밭, 그리고 공동활용시설로 1,000㎡에 관리실, 공동교육장, 공동작업장, 공동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며, 지원시설로는 7,000㎡에 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관수시설 및 진입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5년 추진되는 공동체정원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텃밭·꽃밭은 최소화하고, 단체텃밭·꽃밭 위주로 조성하고자 한다. 공동체정원사업의 유형과 표준모델은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1〉 공동체정원 사업유형

사업명	규모	사업비 (백만 원)	개소	주요시설	비율 (특교:지방)
계		3,500	9		
공동체 정원	1만 ㎡ 미만 (3,025평)	500	3	– 정원시설(가족텃밭·꽃밭, 단체텃밭·꽃밭) – 공동활용시설(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 시설 등) – 지원시설(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	3:7
	1만 ㎡ 이상~ 2만㎡미만	900	3		5:5
	2만 ㎡ 이상 (6,050평)	2,100	3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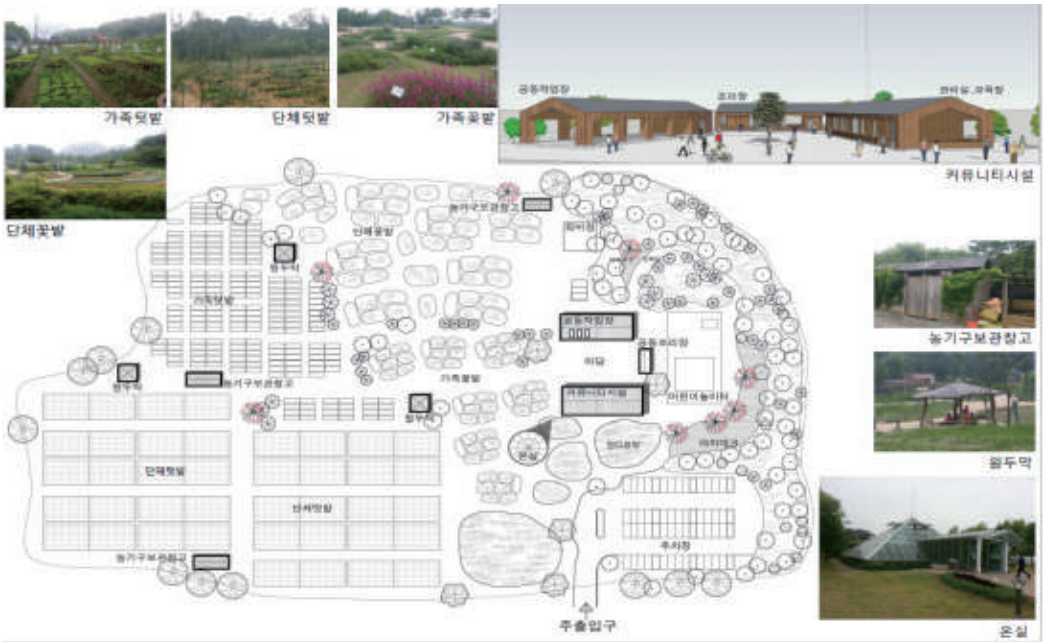
〈표 2〉 공동체정원 표준모델 : 20,000㎡(6,050평)

구분	주요시설
계	20,000㎡
정원시설 (12,000㎡)	가족텃밭 : 2×5=10㎡(3평)/100개소 = 2,000㎡ 단체텃밭 : 5×10=50㎡(15평)/150개소 = 7,500㎡ 가족꽃밭 : 3×3= 9㎡(2.7평)/50개소 = 450㎡(경관용) 단체꽃밭 : 5×5=25㎡(7.5평)/82개소 = 2,050㎡(경관용)
공동활용시설 (1,000㎡)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 150㎡(10×15)/1동 공동교육장 : 120㎡(8×15)/1동 공동작업장 : 200㎡(10×20)/1동 공동조리장 : 30㎡(3×10)/1동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500㎡(20×25)
지원시설 (7,000㎡)	농기구보관창고 : 60㎡(6×80)/3동 = 180㎡ 온실(겨울정원용) : 120㎡(8×15)/1동 원두막 10㎡(3.16×3.16)/3개소 = 30㎡ 퇴비장 : 100㎡(10×10)/1개소 관수시설 및 진입통로 등 : 6,570㎡

공동체정원사업 운영방안

공동체정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운영과 관리는 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시행하며, 운영 및 관리비용은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금액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공동체정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초기 사업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선정기준은 정원부지의 적합성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정원부지는 도심 주거지에서 30분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지 여부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체 회원의 열정과 경험이 높은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운영프로그램의 준비성을 따져 텃밭·꽃밭분양 및 지원은 물론, 각종 교육, 이벤트 등 공동체 활성화계획과 기타 꽃밭, 꽃길 등 정원의 미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추진일정은 7월경 사업설명회 및 공모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15년 8월부터 '1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보고회 및 평가·발표회 등을 통해서 우수지역을 시상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동체



▲ 공동체 정원(안)

모임·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체정원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농업을 매개체로 하여 세대 간 소통,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우고 서로 화합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정원 육성 방안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1. 커뮤니티 정원의 유래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즉 직역하면 공동체 정원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의 유래는 1893년 미국 경제공황기 당시 디트로이트 시장(H.S.Pingree)이 저소득층에게 먹을거리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추정된다. 일종의 정부의 빈곤대책으로서 정원 활동이 활용된 것이며, 당시에는 커뮤니티 정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화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티 정원 운동은 1960년대 뉴욕시에서 새로운 개념의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민권 운동이 활발하여, 커뮤니티 정원 운동 또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고 주민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추진되었다. 경제시책에 의해 채소를 키우는 목적이 아닌, 사회적 해결책으로서 커뮤니티 정원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김미향, 2011 참조).

〈표 1〉 미국 커뮤니티 가든의 유형과 특징

구분	설명
농원형 가든	공원 및 식물원의 일각, 건물의 옥상, 가각의 공지에 있는 구획으로 세분화된 채소밭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시민농원형의 가든
커뮤니케이션형 가든	학교, 노인, 홈, 공공아파트, 병원, 교회,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복지내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형 가든
테마형 가든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유휴지를 이용한 아트, 향기, 자연 등 특정의 테마를 가진 레크리에이션 성향이 높은 테마형 가든
교육형 가든	유아·아동·청소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어린이 가든, 스쿨 가든 형태의 교육형 가든
갱생요양형 가든	홈리스·형무소(소년원)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원 등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갱생형 가든이나 심신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든
복합형 가든	화단, 채소원, 벤치, 녹음공간, 잔디광장 등 레크리에이션 및 학습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되는 복합형태의 가든

자료: 김미향(2011)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 정원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조성 목적은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로 1890년 영국의 알로트먼트법(Allotment), 1961년 소정원촉진법(Kleingarten), 1990년 일본의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 의한 텃밭 조성 등이 있다. 영국, 독일, 일본의 텃밭은 주로 도심내의 유휴지나 도시근교의 땅을 구획 정리한 후,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도시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표 2〉 일본 시민농원의 기능

구분	기능	내용
개설자 측	토지보전기능	유휴농지활용에 의한 적절한 농지의 유지 및 관리
	고용기능	농원관리자, 재배지도자의 고용
	교류기능	이용자와의 교류
이용자 측	보건휴양기능	심신의 재충전, 건강증진
	생산기능	신선하고 안전한 작물 수확
	교육기능	농업에 대한 이해, 아이들의 정서교육
지역	교류기능	이용자들 간의 교류, 개설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공지기능	일조, 통풍확보, 화재방지, 재해 시 피난장소
	풍치기능	넓은 녹지 형성

자료: 김재원(2007)

2. 한국의 추진경험

한국에서도 도시 내 공지를 활용한 텃밭 가꾸기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1994년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도시 주변의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 1,000㎡ 미만에 한정하여 도시주민의 텃밭용 농지소유를 허용한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네트워크, 그린트러스트 등 시민단체 등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영형태로는 개별 농장주가 도시외곽의 주말농장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텃밭을 분양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유형이며, 관련 법률 및 조례가 정비됨에 따라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공기관이 토지를 확보하여 해당 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이 공공기관 추진의 일반적 유형이다.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들어, 자치단체와




〈그림 1〉 부산 APEC나루공원 커뮤니티 가든(좌)과 서울숲 커뮤니티 가든(우)

시민단체가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텃밭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정원 운동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고 주민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추진된데 반해, 한국의 관련 사례는 농업 촉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운영주체별로 나타난 텃밭 조성의 목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대부분의 도심텃밭이 친환경 먹거리 재배에 목표를 두고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텃밭의 개별 이용자들이 웰빙의 관점에서 건강한 먹거리 재배에 텃밭 이용의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공공 및 민간 운영주체들의 주된 역할 또한 토지 분양, 농사교육, 텃밭관리 서비스 등 농사짓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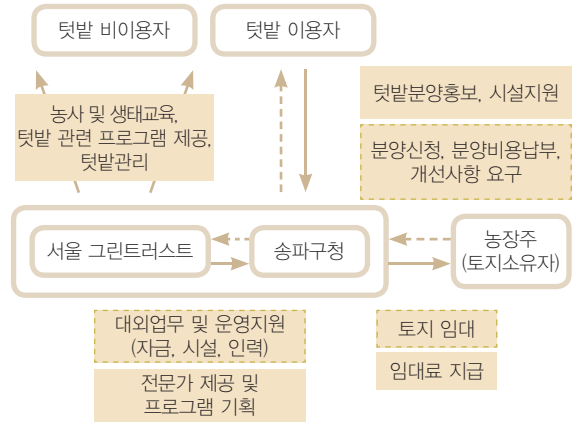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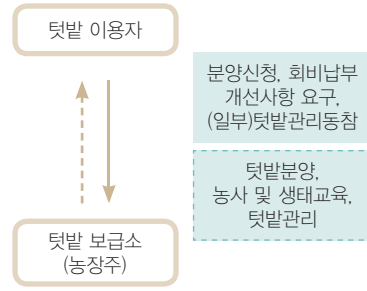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에서의 텃밭 활동도 비단 농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마을 만들기 경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례도 있다. 마을의 유휴지 및 공지를 대상

〈표 3〉 운영주체별 사례

구분	사례	운영목표	운영형태
공공 운영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먹거리 재배 (친환경 농법 권장)	텃밭 이용자 분양신청, 분양비용납부, 개선사항 요구 텃밭홍보 및 분양정보제공 텃밭분양, 농사교육, 텃밭관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농장주 (도지소유자) 친환경농사교육(농장주), 시설지원, 농장홍보, 우수텃밭 선정

자료: 이차희·손용훈(2014) 참조하여 재구성

〈표 3〉 운영주체별 사례

구분	사례	운영목표	운영형태
민관 파트너십	송파구 + 서울 그린 트러스트	로컬푸드 운동 (친환경 농법 권장)	
민간	개별 농장	생태적 생활방식 (유기농법)	

자료: 이차희·손용훈(2014) 참조하여 재구성

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커뮤니티 정원을 가꾸며 주민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경험들도 축적되고 있다.

3.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정원 육성 과제

도시농업의 육성 차원에서도 도심 텃밭 조성이 필요하겠지만, 점점 개인화되고 공동체가 소멸되어 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정원 활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정원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농업 활동들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커뮤니티 정원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교류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애틀의 커뮤니티 정원 사례를 살펴보면, 텃밭 등 공동 원예시설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바비큐장, 사교공간 및 벤치, 아동 놀이공간, 원형극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커뮤니티 정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워크숍, 바비큐 행사, 음악회, 어린이 원예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개인 및 가족단위로 자신들의 건강한 먹거리 습득을 위해 텃밭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텃밭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사례에서도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사용의 개인화를 방지하는 정교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정원이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관 파트너십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정원의 공동체 형성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이차희 외, 2014), 민관 파트터십으로 운영되는 텃밭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텃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체 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텃밭 이용자·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경험이 있는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커뮤니티 정원의 운영으로 텃밭 이용자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커뮤니티 정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용자들의 원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근 지도자가 필요할 수 있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커뮤니티 정원이 운영될 때는 이 역할을 해당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학습 및 공동체 프로그램이 시·공간적 제약이 뒤따르므로, 현장학습 및 상시적 정원 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커뮤니티 전문 원예사(Green thumb)'를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향, 2011, 도시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가든 모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원, 2007, 외국의 체재형주말농장사례를 통한 한국식 체재형주말농장 형태에 대한 제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경·이소영, 2015,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미발행)
• 이차희·손용훈, 2014, 도시텃밭 운영주체별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공동체 형성 효과, 농촌계획,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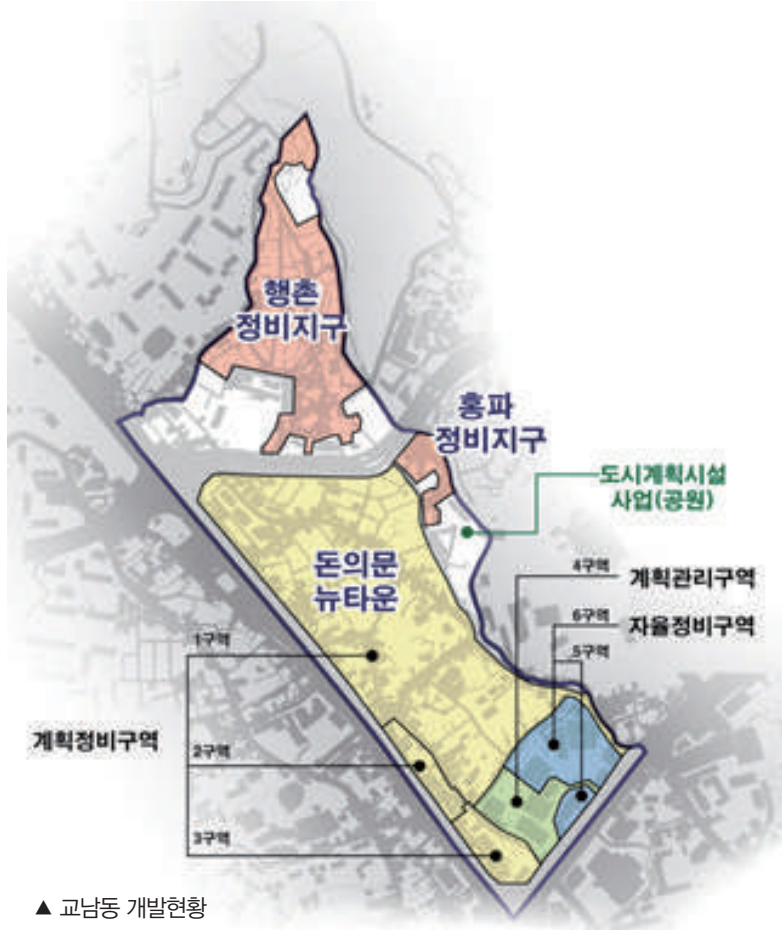
〈국내사례〉

교남동 공동체정원가꾸기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교남동은 경희궁 서쪽편 성곽 밖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촌락이 발전한 지역으로 경교장과 홍난파가옥, 틸쿠샤 등 풍부한 역사자원을 갖고 있는 저층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 행정동은 교남동이지만 법정동은 교남동·평동(平洞)·송월동(松月洞)·홍파동(紅把洞)·교북동(橋北洞)·행촌동(杏村洞) 등 6개로 이뤄져 있다. 먼 옛날 교남파출소 앞에 돌다리가 있었고, '돌다리의 남쪽 동네'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경사가 심하고 노후화된 주거



▲ 교남동 개발현황

지여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남동 대부분은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촌 및 홍파 정비구역은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돈의문 뉴타운지구 역시 2015년 현재 전면 철거된 상태다.

마중물복지회와 문풍지사업단

오래된 저층주거지다보니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 많은 편이지만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아 주민 간 교류나 친밀도는 매우 높은 지역이다. 교남동에서 주목할 점은 교남동에는 교남동이 고향이거나 오랫동안 교남동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마중물복지회(회장: 김정민)'라는 지역기반의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중'은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이 있다. '마중물'은 '맞이하는 물'이다. 즉 깊은 샘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릴 때 쓰는 한 바가지쯤의 물을 마중물이라 한다. 기꺼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마중물복지회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모임, 학부모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만들어 커뮤니티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1년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있던 마중물복지회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와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서울복지재단 공모사업에 도시연대는 '문풍지사업단'(사업명)을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거주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40여 가구에 단열재 시공 및 월동물품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저소득층 생활지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장소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 외곽에 사직공원과 월암공원이 위치해 있었지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는 녹지나 휴게공간이 전혀 없었고, 문풍지사업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 장소를 조성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가시키고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자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남동과 부평삼산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지역 커뮤니티 장소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교남동에 6500만 원이 배정되기도 하였다.

마을기초조사와 공동체정원

교남동의 '공동체정원가꾸기'는 공동체정원 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같은 마을기초조사와 주민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다. 교남동은 경사가 매우 심하고 계단이 많은 동네여서 밀집되어 있는 주택의 열악한 내부환경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집 출입문 앞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었다. 주민들의 욕구조사 결과 주민들 간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재개발 예정구역에 의해 방치된 공터와 공가를 텃밭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 교남동 공동체정원가꾸기 시민욕구조사

주민자치위원회에 2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고 텃밭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마중물복지회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텃밭 대상지 추천을 받는 등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주민의견을 취합한 결과 교남동 공동체정원인 텃밭 2개소와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골목길 상자 텃밭을 분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마을농부학교 개최

개인경작 개념의 텃밭이 아니라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텃밭이라는 의미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커뮤니티 장소로서 텃밭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을농부학교'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총 5강좌 농부학교를 수료한 주민들에게는 마을공동체정

원인 텃밭을 분양해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30명의 주민들이 지원하여 마을농부학교를 진행하였다.

마을농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텃밭경작 방법 습득,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 간 약속 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마을농부학교의 주요 강좌는 총 5강좌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도시농업의 이해」, 「마을과 공동체-약속을 디자인한다」, 「농업의 방법」, 「수료식 및 도시농업 실제로 해보기」이다.





▲ 마을농부학교

텃밭을 매개로 한 공유프로그램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전문가들과 마중물복지회 등은 도시연대의 설계 등 자문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정원의 대상지가 되는 텃밭과 상자텃밭 등을 조성한 다음 분양하였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건축물 폐기물 등 쓰레기가 쌓여있던 공동체정원, 즉 마을텃밭 대상지는 지역 내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방치된 공터의 쓰레기 등을 처리했다. 마을공동체정원, 즉 마을공동텃밭에서 경작한 배추는 함께 수확하여 마중물복지회와 교남동주민센터, 행촌경로당, 도시연대가 함께 김장을 담그고 나눠먹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텃밭을 통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다.








▲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활동과 결합



▼ 공동텃밭과
상자텃밭 조성 후 분양








텃밭을 중심으로 김장김치 나눠먹기 등 주민 간 다양한 교류가 늘어나면서 주민참여가 실현되자 2014년에는 독립문초등학교 통학로 개선활동 등 지역 내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에도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교남동은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이 공동으로 일구는 텃밭을 조성

하고, 농부학교 – 텃밭일구기 – 김장김치나눠먹기 등 텃밭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마을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을이야기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도시연대와 마중물복지회, 교남주민센터, 행촌경로당, 교동협의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였고,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이다. 2014년 돈의문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어 대부분 철거되었으나 함께 진행했던 마을리더들이 새로운 텃밭 조성 및 주민과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사례〉

독일의 생태소공원 : 도르트문트 클라인가르텐 (KLEINGARTEN)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5일 근무제가 일반화되어 텃밭 가꾸기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 분야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도시농업법을 제정한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2년을 도시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8년까지 1,800개의 도심텃밭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심텃밭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구상하고 있다.

텃밭은 삭막한 도시 속에서 자연을 만나고 여가를 즐기면서 소규모 작물생산도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도심텃밭 가꾸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단연 독일이다.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 조그만 오두막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정원들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시 주변에 수없이 많아서 빈민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오두막을 갖춘 작은 정원이 바로 독일이 자랑하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소정원)이다.

의사이자 이 분야의 선구자인 모리츠 슈레버 박사의 이름을 따 흔히 슈레버가르텐(Schrebergarten)으로도 불리는 클라인가르텐은 1800년대 산업화 초기 시대에 만들어진 시설로서 개인 땅이 아닌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에 지어지며,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지역협회에 정원용으로만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임대해 주면 지역협회가 이를 다시 소속 단지협회와 개별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어 영농을 통한 건강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그후 1961년 커뮤니티 정원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임대료 규정과

지방정부의 클라인가르텐 조성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983년 클라인가르텐법(Bundeskleingartengesetz)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시설로서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는 소정원의 법적 근간이 되는 정의, 종류, 규모, 임대차, 운영규정, 손실보상, 대체용지 조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클라인가르텐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영농용지의 이용이 보장되는 시설로서, 사적 필요에 따른 영농생산물의 취득, 여가활동 성격의 휴양이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조 제1항), 소정원에 설치가 가능한 부속물로는 '소정원 내부에 설치된 보도, 소규모 놀이터 및 관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다수의 텃밭 집단화지구'라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1조 제2항).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비영리단체로서의 협회가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소유 또는 임대할 수 있는 텃밭의 규모는 40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물인 건축물은 단층으로 지붕으로 덮이는 총면적이 24㎡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여 상시주거를 제한하고 있다(법 제3조).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독일 연방 내 19개 주에서 15,000개의 동호인 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회원수가 140만 명에 달하며 총면적이 47,00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동안 160여 년의 발달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을 요약하면 첫째,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택 내에 위치한 주택정원과는 성격이 다르며, 둘째, 큰 토지를 구획하여 수많은 필지로 분할하고 이것이 집합하여 하나의 클라인가르텐을 형성하고 있고, 셋째, 대부분의 필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정원이며, 넷째, 주 재배작목이 채소류와 과수 재배로 자급 실용주의에 기초를 두고 온 가족이 자가노동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주말농장 등과 구별된다.

〈그림 1〉 독일 클라인가르텐 전경



〈소규모 단지〉



〈대규모 공원〉



〈텃밭 가꾸기〉

독일의 소정원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활력있는 생태환경 조성사례로 도르트문트(Dortmund)의 클라인가르텐을 꼽을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시로 독일 서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그린 메트로폴리스(생태주의 대도시)이다. 도르트문트시에는 118개의 클라인가르텐이 존재하며, 회원은 10,700여 명에 달한다. 클라인가르텐은 대부분 공유지이며 시유지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대부분은 도보로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대체로 택지개발이 적합하지 않은 폐부지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주거지와 다른 용도지구 사이에 분포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정원이 딸려 있지 않은 주택에 사는 시민이 임대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1개의 텃밭을 임대받을 수 있고 규모는 대략 구획당 300㎡ 정도이며 텃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은 최대 침실 1개, 부엌 1개 및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임차인은 협회 운영비로 구획당 연간 225 유로(약 28만 원)를 조합에 납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회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공동체 의식의 강화, 홍보 및 교육,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원지와 전문적 팸플릿을 제작·발간하고 있다. 또한 소정원을 위한 '정원 축제'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며, 청소년들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생생히 접할 수 있도록 주변 유치원 혹은 학교와도 협력하고 있다. 소정원의 토지이용은 이른바 '1/3 원칙'에 따라 구획별로 1/3은 자연상태의 정원 및 농지인 초지형태로 활용되며, 1/3은 꽃나무, 넝쿨 및 덤불이 식재된 공간, 그리고 나머지 1/3은 유실수나 채소 등

〈표 1〉 도르트문트 클라인가르텐의 입지 및 구조 유형

조성 도면				
특성	하천변에 위치	고속도로변에 위치	텃밭공원의 배치	임시주거공간의 설치구조
위치	Scharnhorst-Ost 지구	Woldenmey 지구	Bodelschwingh 지구	

참조: www.gartenvereine-dortmund.de/ 의 자료를 참조. 황지욱(2010)에서 재인용

이 식재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 단지들은 공공 통로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확보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텃밭을 임대받거나 소유하지 않은 시민도 공원처럼 항상 산책과 관람이 가능하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도시 속의 허파'로서 도시민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우선 도시 주변에 10~30분 거리에 가까이 위치하여 주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조성되어 있어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력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클라인가르텐은 주민의 건강과 휴식 기능을 제공하며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농업적인 영역을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여 도시민에게 농업 생산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클라인가르텐에 비오톱(Biotop)을 조성해줌으로써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토양과 물 관리에도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중화에 힘써왔다는 점이 독일 소정원정책의 장점이다. 클라인가르텐 단지의 조성비용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정원이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토지주택연구원(2011), 「개발사업에서의 도시농업 도입방안」.
• 황지욱(2010),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텃밭의 도입과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클라인가르텐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69-184.
http://www.dortmund.de/de/leben_in_dortmund/umwelt/kleingaerten/startseite_kleingaerten/index.html(독일 도르트문트시 인터넷 홈페이지)

찬란했던 웅진백제시대의 숨결을 느껴보자!

공주

그동안 백제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나 광활한 영토를 거느린 고구려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500년 전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해상왕국 백제의 진면목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백제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커지고 있다.

백제시대 후반부 역사의 중심지였던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확정되어 전 세계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는 백제의 왕도로 5대왕 64년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장이며, 지금도 공주에 오면 무령왕릉, 공산성, 국립공주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백제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 무령왕릉



백제고도 공주의 상징, 공산성

공산성은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서 벗어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패색이 짙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의 장으로 5대왕 64년의 백제 웅진사를 써내려간 곳이다.

백제 웅진의 64년 도성이 된 공산성은 백제시대 이래 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시대의 변천을 겪어 와 그 세월만큼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산성 성내에는 백제 때 건물지를 비롯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건물지가 산재해 있다. 조선 인조대왕의 일화가 전해지는 쌍수정을 비롯해 백제의 추정 왕궁지, 성의 동쪽에 있는 임류각지 등 성 안에 백제의 왕궁지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발굴지들이 자리잡고 있다.

공산성은 어느 방향에서 올라서더라도 성에 오를 수 있고 성벽길을 따라 가면 발밑이 도심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산성의 정취에 푹 빠져든다.

금서루에 올라 우측 성벽을 따라







▲ 공산성

가면 구불구불 완만하다가도 때로는 급하게 흐르듯 이어지는데, 굳이 안내를 받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진남루, 영동루, 연지와 만하루, 공북루 등은 조선시대 문루건축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특히 성의 북쪽 곳곳은 금강과 어우러진 공산성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어 좋은 곳이다. 공주시가지 전경이 눈에 들어오고 금강이 발 아래 흐르는가 하면 강 너머 공주시가지가 조망되기도 하는 등 멋스런 경관이 불쑥불쑥 나타나 성 밖의 경관 또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공산성이다.

1500년 전 백제의 타임캡슐,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 송산리 제5, 6호 고분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굴된 웅진백제시대의 고분이다.

발굴 결과 부장품 중 지석은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록

▼ 무령왕릉





▲ 무령왕릉 모형관

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을 크게 흥분시켰다. 지석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삼국시대 왕릉 중 피장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는 대발견이자, 사건이었던 무령왕릉의 발견은 웅진백제시대의 타임캡슐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108종, 4600여 점의 출토 유물 가운데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됐을 정도로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한다.

더불어 이곳에서 발견된 관장식과 장신구, 생활용품도 대단하지만, 무덤 벽돌의 제작 수준과 공법은 당대의 우수한 건축기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 백제웅진시대의 문화적 우수성도 함께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무덤을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모형관 내부는 무령왕릉 앞의 송산리고분군 5, 6호분도 함께 복원·전시하고 있어 왕릉의 전문 정보가 가득하다.

왕릉에 대한 각종 정보검색과 함께 영상, 패널, 디오라마 등 전시 연출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고분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고분을 주제로 하는 역사퀴즈, 기념사진 찍기 등 미디어를 활용한 즐길거리는 역사공부와 함께 게임도 즐길 수 있어 단연 인기다.

모형관 관람을 마치고 동선을 따라 이동해서 6호분 동쪽 5호분을 지나면 입구가

굳게 닫힌 무령왕릉 앞에 다다른다. 모형관에서 보고 들은 기억을 되새기며 잠시 머물다 송산 정상으로 계속 오르면 봉분이 높이 솟은 1, 2, 3, 4호 분이 기다린다. 이 고분들을 지나면 정상부. 멀리 서쪽 숲 너머로 금강이 흐르고, 남으로는 공주시가지의 일부가, 동쪽으로는 공산성이 조망된다. 이처럼 공주시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아름다운 대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백제웅진시대를 한눈에,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은 웅진시대 무령왕릉의 출토품은 물론 수촌리고분군 출토품과 충남지역 고대 ~ 통일신라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보 18점, 보물 4점 등 4만 5,000여 점의 문화재를 보관·전시하고 있다.
이곳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특히 한성시대 이후 끊어졌던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고, 신라나 가야, 일본 등 주변 나라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백제 중흥의 발



▲ 국립공주박물관 전경



▲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실 내부



▲ 석수

판을 마련한 웅진백제 64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무령왕릉의 출토유물은 가히 세기의 대발견이라 할 만큼 역사, 고고학, 미술사, 문화재적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백제사가 안고 있었던 의문점을 푸는 열쇠가 된다.

국립공주박물관 1층에 마련된 무령왕릉실에는 무령왕릉 출토유물이 전시되고 있는 곳으로 108종 4,6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묘지석, 금제관식, 금제이식, 금은제허리띠, 금동제신발, 금제팔찌 등 1,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선사고대문화실은 웅진백제시기 백제왕실 및 귀족의 문화와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철기시대를 거쳐 마한과 백제(기원전 18~660)의 웅진, 사비시대 중심지로 역할을 한 뒤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지는 충청남도 지역의 문화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충청남도의 고대문화실을 거쳐 꼭 들러야 하는 곳은 우리문화 체험실. 이곳에서는 유물조각 맞추기, 주사위 퍼즐 맞추기, 탁본 뜨기, 무령왕릉 벽돌쌓기, 지점토로 백제문양 찍어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백제 유물의 형태나 모양, 무늬,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느껴볼 수 있다.

제13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09:30 ~ 10:3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읍·면자치 어떻게 도입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일 시 2015년 7월 7일(화) ~ 8일(수)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7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기본연구과제 중간보고회(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제8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이원희(한경대학교), 손희준(청주대학교), 조임곤(경기대학교), 김성수(서울대학교), 임경수(성결대학교), 권영주(서울시립대학교), 김순은(서울대학교), 이기우(인하대학교), 정홍상(경북대학교), 유재원(한양대학교)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2015년도 한일 공동연구회 개최

일 시 2015년 7월 16일(목) 14:30 ~ 18:0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2015년도 한·일 공동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일 공동 연구회는 '한일 지방재생 및 창생'을 대주제로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니시나까 타까시 사가현 통괄본부 통괄본부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발간물

「지방자치 Focus」 제96호 발간
제 목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저 자 김건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자치 Focus」 제97호 발간
제 목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동향 및 개선방향
저 자 송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8월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지방규제개혁	3일(비합숙) (19시간)	제3기 8. 19(수) ~ 8. 21(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3일(비합숙) (21시간)	제2기 8. 26(수) ~ 8. 28(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el. 02-3488-7361 / yjtak@kril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wetax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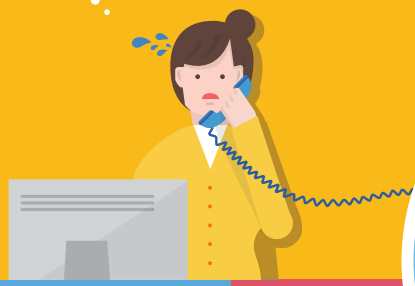
비정상적 관행 신고



고충민원 상담



제도개선 제안



110

복지부정신고

식품안전관련 문의

공무원 시험·인사제도 문의

각종 통계문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부패·공익침해 신고 상담



장애인복지

민원24 관련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모바일 앱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영상전화(씨토크) 070-7947-8110

국민결愛 110 정부민원 110

110 번호하나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http://www.fta.go.kr

한-중 FTA,
14억 중국이 더 크게 열립니다



14억 중국이 더 크게 열립니다



· 연간 78억불의 수출 관세 즉시 철폐
· 458억불의 수출 관세는10년내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로 비즈니스가 더 쉬워집니다



·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의무 면제
· 48시간 내 통관 원칙,특혜 관세 사후 신청

서비스 시장이 더 크게 개방됩니다



· 건설사 등급 판정 시 한국 실적 인정
· 엔터테인먼트기업의 합자회사 허용
· 5개분야 환경시장에서 100% 지분설립 허용

지난호 Issue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06

지방자치실천포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육성

: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특별대담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 신우철 완도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5